

근대시기 일본의 국어과(國語科)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Depiction of Korea in Pre-Modern Japanese language Textbooks of Japan

박소영, 정재윤
한국학중앙연구원

So-Young Park(parksy@aks.ac.kr), Jae-Yun Jeong(jjy@aks.ac.kr)

요약

이 글은 근대 일본의 국어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을 분석하여 당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시행되었던 제1기(1904년)부터 제5기(1945년)까지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근대 일본의 국어교과서에서 한국관련 내용은 신공황후,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속, 인삼, 서울과 시골풍경 등의 내용으로 요약 가능하다. 신공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하여 한국은 수동적인 약소국의 이미지가 부여되었다. 또한 온돌, 의복, 의례 등 일본과 다른 문화를 지닌 한국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짐을 실어 나르는 말과 비위생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전근대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조선총독부와 일제에 의해 신축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서울을 묘사함으로써 식민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조선의 시골 모습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통하여 내선일체를 유도하였다.

■ 중심어 : | 근대 일본 | 일본의 국정 국어 교과서 | 한국인식 | 한국문화 | 서울 |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Japanese recognition of Korea through analyzing the Japanese language textbooks of Japan, in order to find how Japanese people perceived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 explored descriptions related to Korea in the Japanese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in the 1st curriculum (1904) to the 5th curriculum (1945). In this period, the Japanese language textbooks were serving in allowing Korea to be associated Queen Jin Goo and Toyotomi Hideyoshi, Korean custom and Korean landscape of Seoul and rural area. They designated Korea was a small and weak country through the stories of Queen Jin Goo and Toyotomi Hideyoshi. Although they introduced Korean floor heating system, Korean costume, and Korean ritual, they reinforced Korea was a backward country through representing undevelope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unsanitary living conditions. They characterized the coloniality of Korea through portraying modern buildings created by Japan on Seoul streets. Furthermore, they induced assimilation of Japan and Korea through the story of Korean rural areas.

■ keyword : | Pre-Modern Japan | Japanese Language Textbooks of Japan by Government-Published Textbook | Perceptions on Korea | Korean Culture | Seoul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73년 일본 문부성이 최초의 국정교과서인 『소학독본(小學讀本)』을 발행한 이래로, 근대 일본의 국어 교과서는 교육·교과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과로서의 성격과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 1903년부터 소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개시되었던 국정교과서제도에 의하여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어교과서가 개정되었다. 각 시기마다 교과서의 구성, 내용,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당시의 교육방침, 일본 국내외의 정세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시행되었던 초기의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시기이다. 당시 일본 국어 교육은 일본이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국민의 계몽’에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형성’, ‘군국주의·국가주의의 함양’, ‘세계관의 확대’, ‘초국가주의 강화’ 등 국어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국어교과서는 수신·문학·역사·지리·이과·농업·공업·경제·공민 등과 같이 폭넓은 영역의 내용을 망라하는 종합독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1].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국어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통해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국(異國)에 관한 정보는 ‘편지’, ‘보고문’, ‘기행문’ 등의 형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것은 국어교육을 통한 ‘세계관의 확대’와 연관된다. 이국에는 조선, 타이완, 가라후토(남사할린), 남양주와 같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식민지에 관한 기사는 단순히 ‘세계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제국주의·국가주의의 함양’까지 확장되었다.

이 글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도로 근대 일본의 국어교과서 속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대는 인쇄매체인 신문, 잡지, 교과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고 확산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신문과 잡지의 경우,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의도와 달리 독자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가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직접적인 대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그 자체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매우 공식적이며 표준적인 해석을 위해 만들어졌고, 근대 시기의 지식과 인식의 확산에 있어 강력한 콘텐츠로 자리하였다[2]. 특히 종합독본의 특성을 지닌 일본의 국정 국어교과서는 언어교육과 함께 당시의 가치관을 반영한 핵심적인 콘텐츠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국정 국어교과서 속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교과서를 통하여 확대되고 보급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일본의 국어교과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한 시도로 일본의 국어교과서에서 한국은 어떤 콘텐츠로 구성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하여 후속 연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선행연구

근대 시기 교과서를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민병찬(2008)은 1912년에 간행된 ‘보통학교국어독본’의 편찬배경을 연구하였으며[3], 박미경(2011a; 2011b)과 노성환(2008)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4-6]. 민병찬·박화리(2007)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와 일본의 문부성에서 발행한 교과서 속의 문학작품을 비교하였다[7].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당시의 실상을 고찰한 연구를 넘어 한일 양국 비교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윤소영(2010)은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 전후의 식민지 역사교육 연구를 위하여 일본의 문부성에서 발행한 역사교과서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국어교과서와 수신교과서를 검토하였다[8]. 민병찬·박화리(2007)와 윤소영(2010)의 연구에서 일본의 문부성에서 발행한 교과서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각각의 교과서 내 특정 내용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근대 시기 한국과 일본에서 발행한 교과서는 꾸준히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당시 양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식민사관 및 역사왜곡에 초점이 두어져있을 뿐 당시 한국에 대한 인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일본의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살펴본 연구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할 수 있다.

II. 본론

1. 분석대상 및 방법

일본이 소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1903년이다. 일본의 교육학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전(1945년) 이전까지의 국정교과서 시대를 일반적으로 5기로 구분한다. 국어교과서의 경우, 제1기는 1904년(메이지 37년), 제2기는 1910년(메이지 43년), 제3기는 1918년(다이쇼 7년), 제4기는 1933년(쇼와 8년), 제5기는 1941년(쇼와 16년)로 구분된다[9].

본 분석에서는 제1기에서 제5기까지의 1학년에서 6학년용 국어교과서 총 64권을 검토하였고, 이 중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1기 『尋常小學讀本』 2권과 3권, 제2기 『高等小學讀本』 3권과 6권, 제3기 『尋常小學國語讀本』 4권과 5권, 제4기 『尋常小學國語讀本』 5권, 제5기 『初等科國語』 6권으로, 총 8권이 분석대상 교과서이다.

분석방법은 제1기(1904년)부터 제5기(1941년)의 국정 국어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이 어떤 주제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주요 내용 속에 등장하는 세부적인 소재들, 가령 역사관련 내용이라면 ‘도요토미의 조선침략’ 등이 등장하며 문화관련 내용에서는 ‘온돌’, ‘전통의상’ 등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소재들이 한국을 인식함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예컨대 도요토미의 조선침략은 ‘나약한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온돌과 전통의상은 한국을

‘이문화’로서 이해하는 소재로 사용되듯이 각 소재들을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재구성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 부정의 측면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인식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복합적 인식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 소재들 역할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인식 구도를 도식화하여 분석대상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관련 내용이 한국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통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근대 일본 국어교육의 중요성

메이지기 일본은 1872년 ‘학제(學制)’를 공포하고 근대교육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당시의 학제에서 국어는 독립된 형태의 교과가 아니라 지리 또는 이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서양의 서적을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1873년 문부성이 최초로 발행한 『소학독본(小學讀本)』이 독립된 성격의 국어 교과서였으나 이 또한 고전(古典)을 그대로 교과서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10]. 이후 1903년 소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교과서제도가 실시되었고, 제1기 국정국어교과서(1904년 발행)부터 제5기 국정국어교과서(1941년 발행)까지 발행되었다.

1907년 3월 소학교령개정에 따라 일본의 의무교육은 취학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의무교육연한의 연장에 따라 교과목과 교수요목 등도 개정되었다. 심상소학교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고등소학교 1, 2학년은 심상소학교 5, 6학년으로 바뀌게 되었다[11].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수신·국어·역사·지리·산술 등이 주요과목으로 이수되었고 그 가운데 국어는 교수 시수에 있어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12].

표 1. 심상소학교교과목별 수업 시수(주당)

	수신	국어	산술	체조	총수업시간
1학년	2	10	5	4	21
2학년	2	12	6	4	24
3학년	2	15	6	4	27
4학년	2	15	6	4	27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

양되어 1900년 전후에는 아동이 소학교교육을 받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 되었다. 1891년 학령아동의 취학률이 50%를 상회하였으나 1907년에는 97%에 이르게 되었다 [13].

이처럼 1900년대부터 소학교의 취학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교과서도 국정제도에 따라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그 중에서 국어는 모국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지만, 국어교육이 근대국민형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도 부여되었던 만큼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근대 일본 국정국어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

3.1 각 시기별 국어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

제1기는 4년까지가 의무교육단계의 ‘심상소학교’로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은 각 학년별로 2권씩 8권으로 되어 있다. 『고등소학독본(高等小學讀本)』은 4년제 고등소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8권으로 구성되어있지만, 2년제 고등소학교와 3년제 고등소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4권 또는 6권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편집되어 있다[14].

제2기부터 4기까지는 의무교육이 6년으로 규정되었던 시기로 각 교과서는 각 학년마다 2권씩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기는 제1, 2학년 아동을 위한 『단어 공부(コトバノオケイコ)』와 『읽기(ヨミカタ)』가 각 4권으로 되어 있고, 제3학년부터는 기존의 「독본」의 이름이 폐지되어 『초등과국어(初等科國語)』로서 각 학년마다 2권씩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따라 제1기부터 제5기까지 사용된 각 학년별 국어교과서는 64권에 이르며 이 글에서는 이들 교과서에서 한국에 관해 서술된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시기별 교과서를 학년별 권호에 따라 배열하고 한국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지점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2. 각 시기별 국정국어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구분 학년	제1기 (1904)	제2기 (1910)	제3기 (1918)	제4기 (1933)	제5기 (1941)
	『尋常小學讀本』 (1-8권)· 『高等小學讀本』 (9-12)	『尋常小學讀本』 (1-12)	『尋常小學國語讀本』 (1-12)	『尋常小學國語讀本』 (1-12)	『初等科國語』 (1-8)
1	1권				
	2권				
2	3권				
	4권	18.신공황후 19.나라(奈良)의 대불상			
3	5권(1)*				
	6권(2)	10.도요토미 히데요시 18.청일전쟁	14.도요토미 히데요시(1) 15.도요토미 히데요시(2)		
4	7권(3)				
	8권(4)		10.조선인삼		
5	9권(5)			19.경성으로	
	10권(6)		13.경성의 친구로부터	11.조선의 시골	5.조선의 시골
6	11권(7)		26.한국의 풍속		
	12권(8)				

* 제5기 교과서(『初等科國語』)의 권호

제1기 교과서에는 한국에 관해 특별한 주제를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신공황후(神功皇后)」와 「나라(奈良)의 대불상」,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청일전쟁」과 같이 일본의 주요인물과 역사를 서술하는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명이 잠시 언급되는 정도로만 등장하고 있다.

제2기에서 제5기까지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풍속」(제2기), 「조선인삼」(제3기), 「경성(京城)의 친구로부터」(제3기), 「경성(京城)으로」(제4기), 「조선의 시골」(제4기, 제5기)와 같이 특정 주제에 관해 독립된 소재목을 설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각 주제에 대해 3페이지 가량 할애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각 주제별 주요 내용

주제	수료교과서	주요내용
신공황후	제1기: 『尋常小学讀本』 4권	(일본 내의) 나쁜 무리들이 제멋대로 하는 것은 외국(필자주: 신라를 의미)이 도와주기 때문이므로 신공황후가 그 외국을 정벌함
나라(奈良)의 대불상	제1기: 『尋常小学讀本』 4권	부처님은 신공황후가 정벌에 나선던 나라(필자주: 신라를 의미)의 이웃나라로부터 전해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제1기: 『尋常小学讀本』 6권 제2기: 『尋常小学讀本』 6권	히데요시는 지내(支那)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자 많은 병력을 데리고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진격함
청일전쟁	제1기: 『尋常小学讀本』 6권	한국에 소동이 일어나자 청국이 일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국에 병력을 파병하여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함을 공격하자 일본은 청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됨
한국의 풍속	제2기: 『尋常小学讀本』 11권	한국의 주거문화, 전통의상, 관례와 장례문화, 일반적 생활모습을 서술함
조선인삼	제3기: 『尋常小学國語讀本』 8권	조선인삼 재배에 관한 설화를 소개함
경성(京城)의 친구로부터	제3기: 『尋常小学國語讀本』 10권	편지 형식을 빌려 당시의 경성의 시가지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음. 송례문을 비롯하여 경성을 둘러싼 성곽, 주요 도로, 남산과 북악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 신구(新舊)의 중요한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음. 용산이 경성에 편입되는 등 경성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과 가을과 겨울의 기후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음
경성(京城)으로	제4기: 『尋常小学國語讀本』 9권	기차에서 만난 한국인과 일본인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부산에서 경성에 도착하기까지 나는 이야기와 시골풍경에 대한 감상이 표현되어 있음. '부산-대전-성환-수원-경성' 이라고 하는 이동경로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경치, 감상 등이 서술되어 있음
조선의 시골	제4기: 『尋常小学國語讀本』 10권 제5기: 『初等科國語』 6권	시골의 풍경과 일상생활 모습이 실려 있음. '가을' 과 '겨울 밤' 이라는 2개의 소재목으로 각각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음. '가을' 은 한국과 일본의 아동이 접지리 참가하는 모습과 가을풍경을, '겨울' 은 겨울밤의 한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

3.2 한국 관련 세부 소재의 재구성

앞 절에는 각 시기별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관련 주제와 그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각 주제별 내용에서 등장하는 소재들에 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소재들의 성격과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당시 교과서를 통해 한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고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관련 내용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다양하다. 가령

「한국의 풍속」(제2기)에서는 한국의 주거문화, 전통의상, 관례와 장례문화, 일반적 생활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세부 소재들을 보면, 낮고 작은 집, 초가지붕, 온돌, 백의(白衣), 조선말(馬), 관례, 장례, 담배, 여인의 외출, 위생관념 없음, 빨래, 다듬이질, 고추를 말리는 가을풍경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부 소재에 부여된 역할이 일정치는 않다. 온돌, 백의, 관례, 장례 등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낮고 작은 집, 초가지붕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위생관념 없음, 조선말(馬) 등은 당시 조선의 전근대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서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땅에 상륙하여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집이 낮고 작은 것이다. 읍내에는 기와지붕도 있지만, 시골에는 대부분 초가지붕이다[15].

남자가 갓을 쓰고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조선말을 타고 시골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옛날 사람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16].

이처럼 하나의 주제를 위해 사용된 소재들은 서술 맥락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역할에 따른 세부 소재

소재의 역할	세부 소재
나약한 국가	신공황후의 정벌, 도요토미의 조선침략, 청일전쟁의 전병터
한국에 대한 첫인상	낮고 작은 집, 초가지붕, 민등산
이문화 이해	온돌과 연통의 연기, 백의(남녀 의상 특징), 관례(성년례), 장례, 담배, 여인의 외출, 빨래, 다듬이질, 고추를 말리는 가을 풍경, 인삼
이국 소개	경성역, 남대문(성문), 서울성벽, 창덕궁, 경복궁, 청명한 가을, 후한의 겨울(삼한사온), 시골의 논밭
내선일체 유도	이치로와 정동이의 잠자리 잡기 놀이
식민성 강조	조선신사, 공회당·조선호텔·조선은행·우체국(멋있는 서양식 건물), 용산(군사령부, 용산정차장), 넓은 도로와 철도, 성환(청일전쟁의 전병터), 부산에서 450킬로미터를 7시간도 걸리지 않고 도착함, 한강 철교
전근대성 강조	조선말(馬), 물 길는 여인과 향아리, 잡초 뽑기를 멈추고 달려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어린이, 위생관념 없음

[표 3]의 각 주제에 사용된 소재들을 나열하여 그 역할들을 특징지어보면 ‘나약한 국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 ‘이문화로서 한국문화 이해’, ‘이국으로서 한국 소개’, ‘내선일체 유도’, ‘식민성 강조’, ‘전근대성 강조’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일본사와 관련된 「신공황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는 그들이 정벌했다고 하는 국가로 한국이 지칭되고 있어 당시 수동적이고 나약한 국가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당시 경성)에 관해서는 창덕궁과 경복궁 위치, 남대문, 서울성벽 등이 존재한다는 소개차원의 서술과 일제에 의해 신축된 서양식 건물, 한강철교, 조선총독부, 조선신사와 같은 소재들을 주요하게 사용함으로써 식민성을 제시하는 서술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 부설된 철도·도로를 조선의 전근대성을 나타내는 소재와 대조적으로 배치시키는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성을 강조하고 조선의 전근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도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식민성을 강조하는 소재는 「경성으로」(제4기)에서도 발견되는데 구체적인 서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역의 동쪽에는 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일부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과 메이지 천황을 모시는 조선신사 있습니다[17].

넓은 도로가 철도와 나란히 통하고 있는 곳이 많다.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다. 짐을 실은 조그마한 조선말이 지나간다. 그들에는 머리에 커다란 짐을 엮고 가던 여인이 쉬면서 땀을 닦고 있다[18].

당시 조선의 ‘전근대성’을 강조하는 소재들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앞의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 ‘조선말(馬)’은 「한국의 풍속」, 「경성으로」, 「조선의 시골」에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위생관념이 없다’는 언급이라든가 산이나 들에 나무나 덩불이 덩성덩성 심어져 있다는 서술들도 비교적 자주 나타나

는 소재이다.

한국인은 그다지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지만 부인들이 옷을 자주 빨래하는 것은 감탄할 일이다[19].

시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표면이 하얗고 게다가 소나무가 덩성덩성 심어져 있습니다[20].

덤불은 그다지 풍성하지 않아 곳곳에 지면의 붉은색이 보이기도 한다. (중략) 비실비실한 포플러 나무 아래 집 한 채에는 울타리에 걸쳐진 하얀 빨래, 붉은 흙색 등을 보면 조선이라는 실감이 난다[21].

3.3 세부 소재의 역할에 따른 한국에 대한 인식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주제에 사용된 소재들은 역할에 따라 ‘나약한 국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 ‘이문화로서 한국문화 이해’, ‘이국으로서 한국 소개’, ‘내선일체 유도’, ‘식민성 강조’, ‘전근대성 강조’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유형화된 소재의 성격은 당시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데 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문화 이해’ 범주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은 한국의 기본적인 문화요소로서 한국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나약한 국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 ‘전근대성 강조’ 범주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은 서술의 맥락과 상관없이 소재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식민성 강조’ 범주에 포함된 소재들은 서술의 맥락을 살폈을 때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위한 매개로 사용되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을 설명할 때 일제에 의해 세워진 서양식 건축물이나 시설에 초점이 두어져 있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국 소개’와 ‘내선일체 유도’ 범주의 소재는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특정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소재들은 아니다. ‘이국 소개’ 역할을 하는 소재는 경성역, 남대문, 창덕궁, 경복궁 등으로 서술 맥락을 살펴봐도 단순 설명 및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내선일체 유도’ 역할로 사용된 소재도 한국인 아동 ‘정동’과 일본인 아동 ‘이치로’가 함께 잠자리 잡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정도이다.

III. 결론

이상 근대일본의 제1기부터 제5기까지 국정 국어교과서에 서술된 한국관련 내용과 소재의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각 소재들을 역할에 따라 ‘나약한 국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 ‘이문화 이해’, ‘이국소개’, 내선일체 유도’, 식민성 강조’, ‘전근대성 강조’로 나누고 대표적인 서술사례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들 세부소재의 역할에 따른 한국에 대한 인식구도를 도식화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한국에 대한 인식구도를 살펴봄에 있어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중구도로 접근하기 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구도의 설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긍정 또는 부정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구도 속에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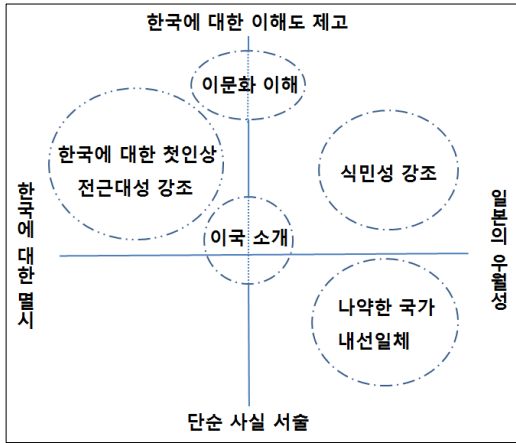


그림 1. 소재의 역할에 따른 한국에 대한 인식구도

[그림 1]과 같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는 긍정적 인식과 ‘한국에 대한 인식’·‘일본의 우월성’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구도 속에서 제시했다. 또한 ‘단순사실 서술’처럼 긍정과 부정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아 특정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는 요소도 구도 속에 포함시켰다.

이 구도를 토대로 각 소재의 역할에 따른 한국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보면, ‘나약한 국가’와 ‘내선일체’는 단순 사실을 서술하고 있지만 일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전근대성 강조’는 한국에 대한 멸시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식민성 강조’도 일본의 우월성을 나타 내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문화 이해’는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멸시나 일본의 우월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국 소개’도 단순 사실을 서술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상, 근대일본의 국정국어교과서에 서술된 한국관련 내용, 사용된 소재들, 소재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국어교과서는 당시의 역사 또는 지리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한국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으며, 당시 교과서들에 만연했던 한국에 대한 멸시와 왜곡이라는 편중된 경향과는 달리 한국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하나의 이국(異國)으로서 한국의 풍습, 기후 및 자연, 시골풍경, 인삼이라는 특산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다루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교과서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했던 일본의 식민성을 나타내는 요소들도 발견됐으나 노골적인 서술 및 소재제시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다. 일본 식민지배에 의해 변화되는 한국(그 중에서도 서울이 자주 등장하지만)과 일견 전근대적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한국의 전형적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남으로써 일본의 우월성과 한국의 전근대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근대 교과서에서 한국은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소재에 따라 인식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타국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특정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이상을 내포한다. 현대에는 시장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 시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22][23], 역사인식을 포함한 국가 간 인식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근대 시기 일본에서 사용하였던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나, 현대 일본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에 사용된 콘텐츠의 변화를 史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근대시기 일본의 역사 및 지리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인식과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을 연계하여 당시 교과서를 통해 형성되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연구의 양이 방대함과 추가적인 자료수집으로 인해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岩田一正, “教科書に見られる児童像の轉換—明治期の國語讀本を中心に—”, 日本常民文化紀要, Vol.29, pp.175-204, 2012.
- [2] 김영훈, “개화기 교과서 속 세계와 역사: 만국지리와 만국사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6집, 제2호, pp.5-30, 2010.
- [3] 민병찬, “1912년 간행 ‘보통학교국어독본’의 편찬 배경에 대하여—소전성오의 ‘조선총독부편찬교과서개요’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제43집, pp.3-15, 2008.
- [4] 박미경, “일제강점기 교과서에서 보는 일본신화—조선총독부발행 『普通學校國語讀本』과 『初等國語讀本』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82호, pp.135-159, 2011a.
- [5] 박미경, “일제강점기 일본어 교과서 연구—조선총독부편 『普通學校國語讀本』에 수록된 한국설화를 중심으로—”, 일본어언어문화, 제18호, pp.477-495, 2011b.
- [6] 노성환, “일본신화를 통해서 본 일제의 동화교육”, 일어일문학, 제39집, pp.285-303, 2008.
- [7] 민병찬, 박화리, “일제강점기 일본어교과서 속의 도태량”, 일본어교육, 제41집, pp.3-20, 2007.
- [8] 윤소영, “일제강점 초기 한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국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6집, pp.327-368, 2010.
- [9] 滋賀大學附屬図書館, 近代教科書の歩み—明治から現代まで, サンライズ出版, 2006.
- [10] 唐澤富太郎, 教科書の歴史 教科書と日本人の形成—, 創文社, 1956.
- [11] 海後宗臣 外, 教科書でみる近現代日本の教育』, 東京書籍, 2013.
- [12] 岩田一正, “教科書に見られる児童像の轉換—明治期の國語讀本を中心に—”, 日本常民文化紀要, 29, pp.175-204, 2012.
- [13] 海後宗臣 外, 教科書でみる近現代日本の教育, 東京書籍, 2013.
- [14] 海後宗臣 外,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六卷 國語(三), 講談社, 1964.
- [15] 海後宗臣 外,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六卷 國語(四), 講談社, 1963.
- [16] 海後宗臣 外,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六卷 國語(四), 講談社, 1963.
- [17] 海後宗臣 外,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六卷 國語(四), 講談社, 1963.
- [18] 海後宗臣 外,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六卷 國語(五), 講談社, 1964.
- [19] 海後宗臣 外,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六卷 國語(四), 講談社, 1963.
- [20] 海後宗臣 外,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六卷 國語(四), 講談社, 1963.
- [21] 海後宗臣 外,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六卷 國語(五), 講談社, 1964.
- [22] 김성필, 김종숙, 이민순, “한류이미지가 한국교육 상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학생들의 몰입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460-474, 2013.

[23] 김미선, 유세경, "일본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한일 역사 인식에 따른 한국 드라마 시청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44-54, 2014.

저 자 소 개

박 소 영(So-Young Park)

정회원



- 2000년 3월 : 일본 국립오이타대학교 국어교육과(문학석사)
- 2003년 6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외국(일본)교과서분석, 일본인의 한국 인식

정 재 윤(Jae-Yun Jeong)

정회원



- 2004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인류학과(인류학 석사)
- 2005년 9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외국 교과서를 통한 한국 인식